

2019. December

통권

제 4 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발행인 이기순 |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 '이해'와 '존중'으로

1. 문제제기
2. 청소년 성 혐오표현 실태
3. 대응방안

참고문헌



요약

- 우리나라 청소년이 사용하는 성 혐오표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며, 부모의 성 혐오표현의 인식을 청소년과 함께 살펴본 경우는 드문 상황임.
- 이에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성 혐오표현의 양상과 부모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청소년과 부모가 인식한 성 혐오표현의 경험유무, 경험정도, 심각성, 정보원, 원인, 경험 후 반응을 조사한 결과, 성 혐오표현의 경험은 “청소년이 10명 중 9명”인 반면, 부모는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남. 그리고 성 혐오표현 경험정도는 4점 만점 중 “청소년이 2.91점”인 반면 “부모는 1.75점”으로 나타나 “부모보다 청소년이 성 혐오표현에 더 많이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청소년은 부모보다 성 혐오표현을 “2배 더 심각”하게 인식함.
- 청소년과 부모는 성 혐오표현을 주로 SNS, 동영상, 온라인 뉴스, 웹툰 등 주로 인터넷 환경에서 경험하였고, 청소년 성 혐오표현의 원인으로는 유해한 대중매체와 성평등(인권)교육의 부재를 꼽았음.
-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을 경험한 후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의 경우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엄격하게 교육하였다”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6%가 나타났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성 혐오표현에 동조하였다가 18.5%로 드러남. 특히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5%는 자신이 성 혐오표현을 경험한 후 ‘무시하기’로 대응하였고, ‘하지 말라’고 분명한 거부를 밝힌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이 나타났을 때, 부모와 청소년 모두 적극적이고 적절한 방식의 대처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함. 둘째, 성 혐오표현이 “폭력”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함. 셋째, 우리사회구성원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인권)교육”이 필요함. 넷째,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모역할”이 중요함.

1. 왜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혐오(disgust)’는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임.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강남역사건’이나 ‘이수역 사건’을 폭력이나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녀 간의 혐오문제로 발전시켜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음.
- 특히 온라인상의 동영상, 댓글, SNS에서는 상대 이성을 비난, 모욕, 멸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까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9 KBS 신년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91.2%로 나타났고, 장애인, 여성, 난민·이주민 순으로 차별과 혐오가 심각(박미리, 2019).
- 최근 청소년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니 애미’, ‘느개비’와 같은 말을 유행어나 장난처럼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말의 의미를 알고 쓰는 청소년은 드문 실정임(이혜정 외, 2018). 또한 이러한 혐오표현이 일부 청소년에게는 불편함을 넘어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임.
-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유해한 미디어의 체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함(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과연 이러한 현상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그런데 청소년과 부모는 성 혐오표현에 대해 얼마나 경험하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우리나라 혐오표현의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6)에서는 청소년 표본(9.6%)이 매우 부족하였고, 청소년과 부모의 성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 다루지 못함.
- 이에 본고에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성 혐오표현의 양상과 부모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 실태

- 청소년 10명 중 9명 “성 혐오표현 경험”, 7명 “항상 또는 자주” 경험
- 청소년이 부모보다 “성 혐오표현 심각성 2배 높게” 인식
- 청소년 10명 중 6명 SNS, 동영상, 온라인 뉴스, 웹툰 등 “인터넷 환경”에서 경험
- 청소년 10명 중 5명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대중매체”와 “성평등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꼽아
- 청소년 남학생 44.2%, 여학생 42.9% “무시하기”로 대처

-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74명, 남: 18명, 여: 56명)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142명, 남:19명, 여: 123명)를 대상으로 성 혐오표현의 경험유무, 경험빈도, 심각성, 정보원, 원인, 경험 후 반응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 “김치라는 말 매일 들어요!!”

청소년은 ‘김치’, 성적인 욕설 등 혐오표현을 자주 접하는 것으로 보고함. 설문결과에서는 청소년의 89.2%가 성 혐오표현을 경험하며, 특히 ‘항상 혹은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타남. 이처럼 청소년의 10명 중 9명이 성 혐오표현을 들었을 정도로 일상화됨. 실제 청소년 A(17세, 여)는 인터뷰에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스스럼없이 ‘김치’라는 말을 잘 쓰고, 거의 매일 한번 내지 두 번 듣는다고 이야기함. 청소년 C(17세, 여)는 남자 아이들 15명 중 10명이 성 혐오표현을 사용하는데, 친구 간에 놀리거나 친해서 장난처럼 말하고, 이러한 또래 간 혐오표현의 사용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사용한다고 말함.

■ “동영상”을 보며 알게 되었어요.

청소년은 성 혐오표현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와 유튜브, 팟캐스트 등 동영상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우는 것으로 보임. 청소년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20.3%), ‘유튜브, 팟캐스트 등 동영상’(12.8%),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12.5%), ‘온라인 게임 채팅’(10.1%)을 통해서 성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음. 청소년 C(17세, 여)는 “‘한남’, ‘김치’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트위터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PC방 가면 게임하면서 욕과 함께 이런 말을 해요.” 라고 함. 비슷하게 청소년 D(16세, 남)는 “‘x튜브’, ‘*** 채널’ 등에서 페미니스트 까는 영상을 보고 ‘꼴페미’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함.

■ 메갈, 페미..그런 말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자꾸 남녀 간에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넷 보면 자극적인 말이 많고, 남녀 간 안 좋은 사건이 나오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지속되는 것 같아요.” — 청소년 A (17세, 여)

“친구들 사이에서 ‘메갈’, ‘페미니스트’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남자는 이거 하지 못한다고 차별받고, 여자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안한다고 차별받는 것 같다.” — 청소년 D (16세, 남)

“친구와 페미니스트는 이런 거다. 약간 변질되어서 여성 우월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조금 이야기 했어요.” — 청소년 B (17세, 여)

인터넷 환경 속에서의 잦은 성 혐오표현의 사용은 청소년에게 남자와 여자간의 고정관념을 발생시키고 남녀 간 갈등을 유발함. 설문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20.3%), '유튜브, 팟캐스트 등 동영상'(12.8%),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12.5%), '온라인 게임 채팅'(10.1%)을 통해서 성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함. 청소년은 매체를 통해 혐오표현을 배우게 됨. 실제 유튜브에서 「*튜브와 ***TV」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판과 역 비판 과정에서 성 혐오표현이 난무함.

청소년은 여혐과 남혐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와 남녀 간 성 대결을 조장하는 편향적인 영상을 제약 없이 접하게 됨. 결국 청소년은 남녀의 성차를 인정하고 상대 이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관 대신 이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됨. 인터뷰에서 '페미'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이고 '메갈'과 동일시하는 현상과 같이, 혐오현상은 이성에 대한 몰이해를 조장하고 남녀 간 골을 깊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음.

■ 심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무시하는 게 “쿨” 한 거예요.

“김치'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여요. 편해서 사용하는 거라 싫지만 화내면 안돼요.” — 청소년 A (17세, 여)

“늘 있는 일이라서 너무 심하다고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 청소년 A (17세, 여)

“재네들 왜 저래하고 흘려요.” — 청소년 D (16세, 여)

“대응하면, 다른 애들까지 뒷담해요.” — 청소년 B (17세, 여)

정작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 혐오표현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무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설문조사에서 90%의 청소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9명은 성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는 18%에 불과했고, 절반에 가까운 45%의 청소년은 무시하고 있음. 적극적 대처보다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시하는 것이 ‘쿨’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또래로부터 뒷담화’와 같은 배제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었음. 이런 현상이 더욱 청소년사이에서 성 혐오표현이 일상화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성 혐오표현이 나타났을 때, 청소년이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정작 보호자는 몰라

이렇듯 청소년 사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성 혐오표현 심각성에 대해 부모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부모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성 혐오표현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88%인 반면, ‘자주 혹은 항상 경험’할 거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함. 비슷하게 부모는 성 혐오표현의 심각성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2%가 ‘심각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여긴 반면, 47%는 심각하다고 응답함. 이 결과는 청소년 조사결과와 상당부분 상반되어 있음.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자주 접하고 심각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모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인식하지 못함.

■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론화했으면 좋겠어요.” — 청소년 A (17세, 여)

“접할 기회가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애들도 그 말을 쓰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청소년 B (17세, 여)

“자기가 쓰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썼으면 좋겠어요.” — 청소년 D (16세, 남)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성별 간의 대결 담론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맹목적 대결 구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불신하는 결과를 낳게 함(최윤영, 2017). 이러한 대결구도는 청소년이 상대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켜 차별의식을 더욱 키우게 됨. 또한 남성 혐오,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함.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미 성 혐오표현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회적·제도적 대책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다는 것임. 그러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성 혐오표현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토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돕고, 청소년 간의 소통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3.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은 점차 일상화 되고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화 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함.

1)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성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SNS, 유튜브 등에서 쉽게 접하는 '젠더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하여 편향된 사고가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상대 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나 '유튜브'와 같은 채널을 통해 청소년 간의 소통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여 균형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원에서는 청소년 성 혐오표현에 대한 주제로 청소년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긍정적 표현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과 관련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청소년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

2) 성 혐오표현이 '폭력'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함

- 혐오표현은 단지 싫은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폭력이며,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배제를 선동하고 차별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청소년 간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이 필요함.
- 대부분의 청소년은 성 혐오표현을 경험한 후 '또래로부터 배제'에 대한 불안을 느껴 '무시하기' 반응을 보였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이 성 혐오표현을 경험했을 때, '방관'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함.

3)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인권)교육'이 필요함

- 남성·여성의 역할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듯이, 한 사람의 행위가 성 정체성으로 설명되고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성으로 이해되는 문화민주주의(장원순, 2009)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에서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한 '성평등(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함.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이나 차별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꿔보는 경험이 필요함.

4) 청소년의 성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모역할'이 필요함

-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언어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자녀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혐오표현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고, 건강한 '의사소통능력'과 '성인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에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좋은 미디어 콘텐츠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부모역할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박미리 (2019년 1월 22일).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만연...현주소 짚어. 소셜포커스.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에서 검색

이혜정, 김아미, 남미자, 민윤, 박진아, 이신애, 이정연 (2018). 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 경기: 경기도 교육연구원.

장원순 (2009). 성 평등 및 다양성을 위한 민주주의교육의 변환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16(3), 35-49.

최윤영 (2017). 반(反)여성혐오에 대한 부정적 논의 확산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종선 (2018).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5(3), 33-57.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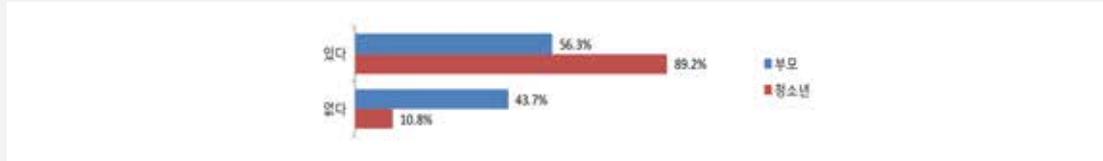
참고자료 - 설문조사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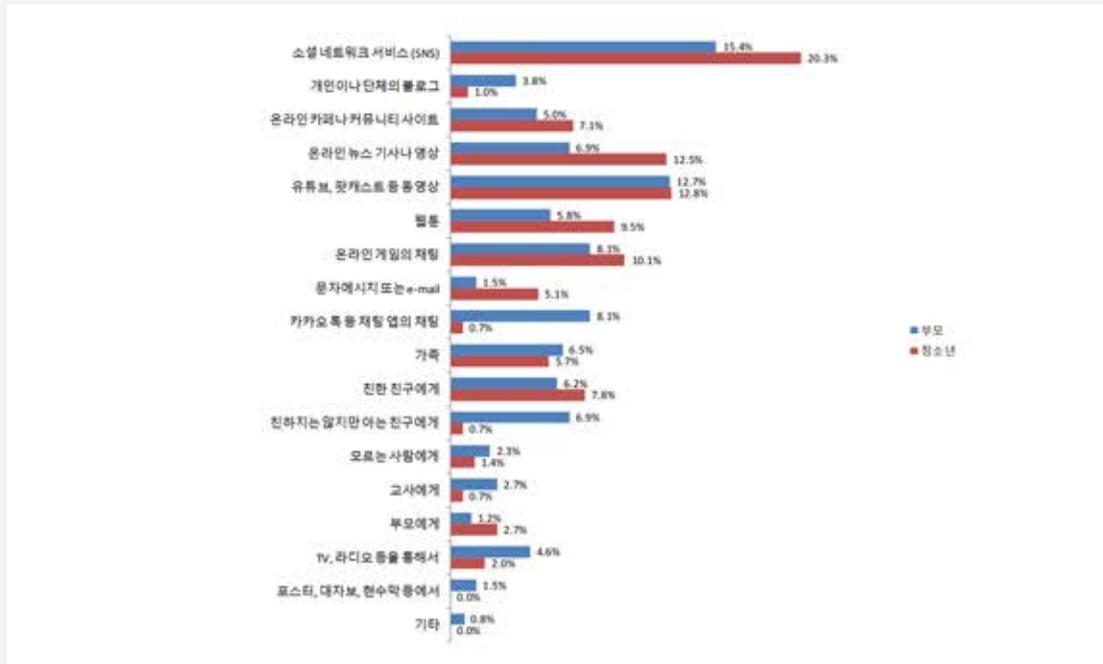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설문대상자 (학교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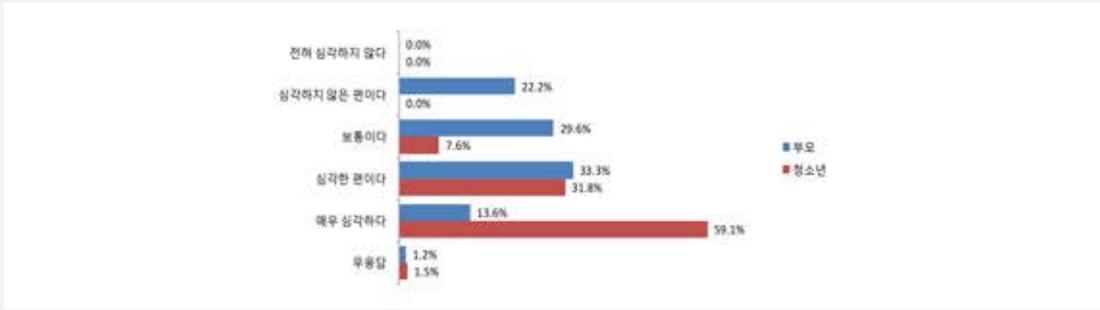
[그림 2] 부모 설문대상 (지역 학교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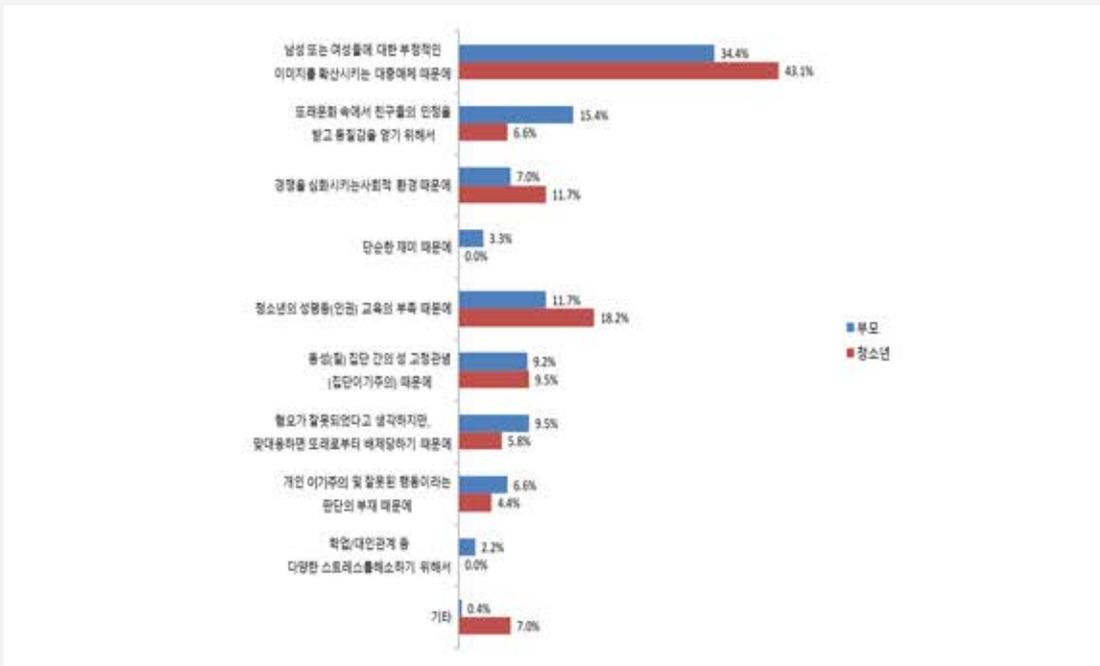
[그림 3] 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성 혐오표현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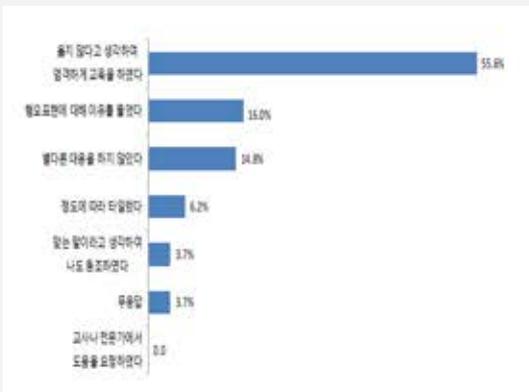
[그림 4] 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성 혐오표현 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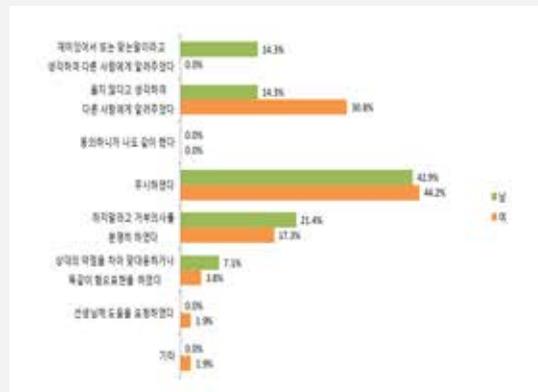
[그림 5] 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성 혐오표현의 심각성



[그림 6] 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성 혐오표현의 원인



[그림 7] 부모가 인식한 성 혐오표현 경험 후 반응



[그림 8] 청소년이 인식한 성 혐오표현 경험 후 반응